

▷ 휴식을 하라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고 말하였다. 어린이는 자는 동안에 성장한다.

모든 생명체에게 활동과 함께 휴식이 필요하다.

노동이 기쁨의 샘이라면 휴식은 평화의 샘이다. 과욕, 과식, 과음, 과로로부터 휴식을 취하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일이 없는 데는 휴식이 필요 없다.

주야를 분별 없이 살지 말아라.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의 잠은 밤 12시 이후에 자는 4시간의 잠과 맞먹는다.



수면은 온 몸을 가장 편히 쉬게 해 주고, 신체 기능을 재생시켜 주며, 질병을 회복시켜 준다.

과로는 만병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휴식의 날을 제정하셨다.

그것이 칠일 제도이다.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쉬어라.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영원한 날이다.

그 날을 지키면 영원한 안식(安息)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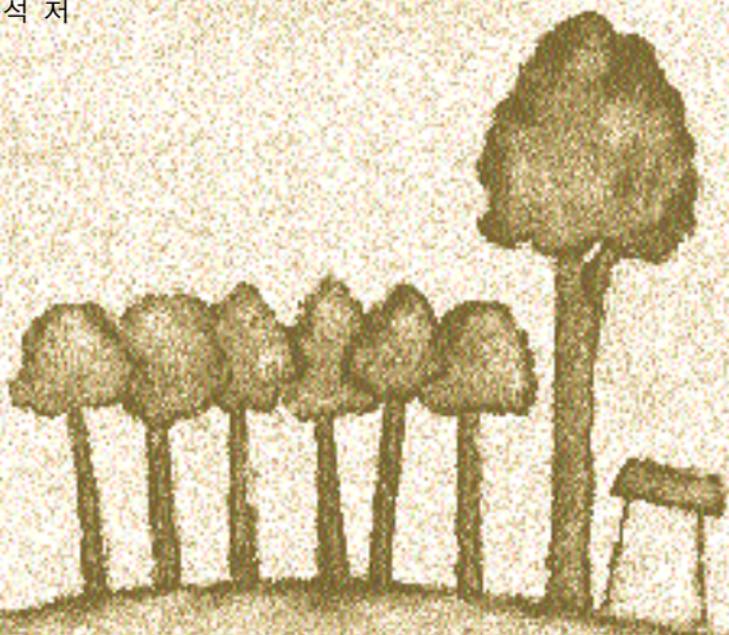
휴식의날을 찾아서

오용석 저



휴식의 날을 찾아서

오용석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 : 28

휴식의 날을 찾아서

2001년 4월 20일 초판 인쇄

2001년 4월 23일 초판 발행

2001년 7월 10일 재판 인쇄

2001년 7월 11일 재판 발행

저 자 오 용 석

발행인 신 계 훈

인쇄인 주 영 봉

인쇄소 시 조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번지

전화 966-0071~5

출판사등록 제 5-2 호

등록일 1955.1.29.

● 저자 연락처

E-mail : wckc077@kuc.or.kr

붓을들며

옛날 명의(名醫)가 장수를 누리 후 임종을 맞게 되자 친구들이 찾아와 “자네가 죽으면 누가 이 마을 사람들을 고쳐 주겠나?”고 물었다. 그 때 명의는 “내가 세 명의 명의를 소개하겠네. 첫째는 음식이란 명의요, 둘째는 수면이란 명의요, 셋째는 운동이란 명의일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살수 있다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교한 인체는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연의 법칙은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다.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질병을 얻는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휴식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운동 부족으로 심폐(心肺)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성인병과 죽음에 이른다.

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천연식품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다. 힘써 일할 열세가 필요하고 평안히 안식할 일곱째 날이 필요하다. 그러면 휴식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역사의 뿌리를 더듬어 살펴보고 선진(先進)들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보자!

2001년 4월 1일

저자 오 용 석

차례

- 제 1 장 휴식의 날의 뿌리를 찾아서 / 5
- 제 2 장 십계명과 휴식의 날을 찾아서 / 9
- 제 3 장 신약 시대와 휴식의 날을 찾아서 / 15
- 제 4 장 사도들과 휴식의 날을 찾아서 / 21
- 제 5 장 말세와 휴식의 날을 찾아서 / 25
- 제 6 장 천국에서의 휴식의 날을 찾아서 / 29
- 제 7 장 휴식의 시간을 찾아서 / 33
- 제 8 장 참 주일을 찾아서 / 37
- 제 9 장 휴식의 날 변경을 찾아서 / 43
- 제 10 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찾아서 / 49
- 제 11 장 휴식의 날을 제정하신 이유를 찾아서 / 55
- 제 12 장 휴식의 날을 위한 나의 결심 / 59



제 1 장

휴식의 날의 뿌리를 찾아서

과로사(過勞死)는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突然死)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쉽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과로가 누적되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유발되어 돌발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문화인들에게 참된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휴식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생체리듬이다. 과로하면 피로하고, 밤이 되면 졸음이 오는 이유는 쉬어야 한다는 생명의 신호이다.

1. 휴식(休息)의 날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작곡가가 만든 곡조라 할지라도 쉽표가 없는 악보를 만들었다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쉽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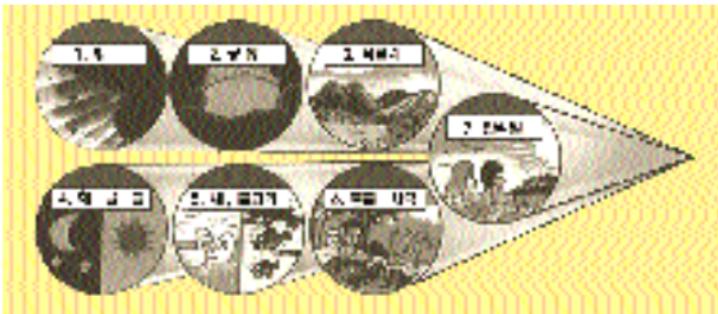
표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주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지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창 1 : 31)으셨다. 그래서 창조의 금자탑을 일곱째 날에 세우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 : 1, 2).

휴식의 날의 뿌리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당신을 경배할 최초의 성전을 공간(空間, space)에 짓지 아니하시고, 시간(時間, time) 속에 지으셨다. 여기 “안식하시니라”(חַד, 화바트)는 말씀은 “일을 마치신 후에 평안히 휴식을 취하셨다”는 의미이다.

세상의 기념일은 1년에 한 번 돌아오지만, 지구 창조의 기념일은 일주일마다 계속 돌아온다. 그러므로 휴식의 날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요, 심히 기뻐하신 날이다. 그리고 그 날은 천지만물의 기원의 경축일이요, 인간 역사의 개시(開始)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엿새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2. 낙원(樂園)에서 시작된 휴식의 날

유명한 저술가 필론은 “세계의 생일이라고 칭한 최초의 안식일은 바로 낙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안식일은 인류의 시조(始祖)가 맞이한 첫 날이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제정된 날이다. 인류의 역사는 노동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안식으로 시작되었다.

안식일은 인류에게 본향의 향수가 그윽한 날이다. 지구의 생일이다. 에덴의 화려함을 맛보는 날이다. 도래될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인류는 이 날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맛볼 수 있다.

3. 축복(祝福)이 선포된 휴식의 날

옛날 헬라인들은 참된 행복을 ‘지식 추구’에 두었다. 세네카는 행복을 ‘무욕(無慾)’에서 찾았다. 평화주의자 러셀은 행복을 ‘고요한 생활’에서 찾았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일곱째 날’에 두었다.

미국의 회중교회 헨리 비처 목사는 “안식일이 없는 세계는 웃음이 없는 사람과 같고, 꽃이 없는 봄이요, 정원이 없는 집이다. 일주일 중에 가장 복이 넘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2 : 3).

하나님께서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vdr, 카다쉬)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 날을 신성하게 하시고, 그 날을 성별 하셨으며, 그 날을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러므로 휴식의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창조의 기념일은 에덴에서 시작되었다. 에덴에서 시작된 날은 지구의 생일이다. 지구의 생일은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다. 기쁨의 날은 복 주신 날이다. 그리고 복 주신 날은 거룩한 날(聖日)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금자탑을 일곱째 날에 세우셨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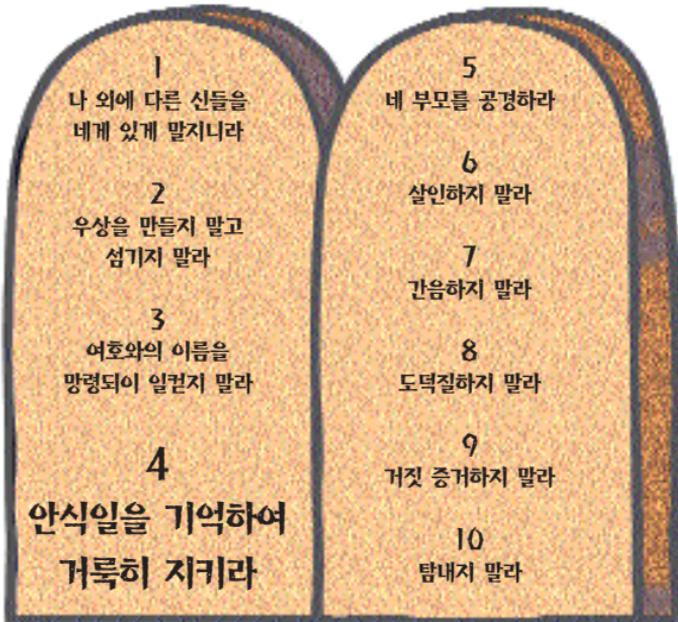
십계명과 휴식의 날을 찾아서

헨리포드는 “일하는 것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 반면에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일과 휴식은 푸른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두 날개와도 같고, 나룻배를 저어 가는 양편의 노(櫓)와도 같고,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와도 같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옛세 동안 힘써 일하라는 “근로 명령”과, 제철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휴식 명령”을 주셨다.

1. 십계명의 휴식의 날을 찾아서

십계명(출 20 : 3~17)에는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

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휴식의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기억할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지켜야 할 날이다.



십계명 중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은 어느 날인가?

2. 안식일(安息日)은 어느 요일인가?

그러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은 과연 어느 날인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안식일이 어느 날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한다. 그러나 모

든 통신은 정확한 번호를, 쌍방의 만남은 정확한 약속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하물며 지존(至尊)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을 인간의 생각대로 아무 날이나 지킬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친수(親手)로 기록하신 십계명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제칠일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대로 정해질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마 5 :17)라고 천명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1)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공동번역 성경(1971년)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막 16 : 2)를 ,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니,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2) 성경 주석이 증거하고 있다

툭슨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54절, 24장 1절을 주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일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23 : 54 이날은 예비일이요. 예수가 돌아가신 금요일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금요일은 해 질 때부터 시작된다.

23 : 56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출 20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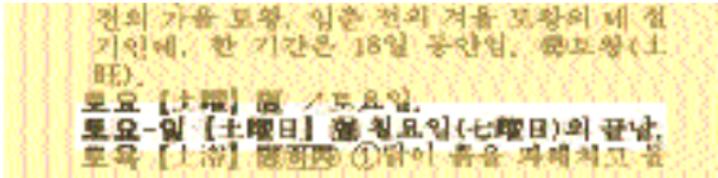
24 : 1 안식후 첫날. 일요일

3)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증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경건한 자세로 맞이한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만 하루 동안이다”(M. 토케이어, 탈무드, 134).

4) 세계의 사전들이 증거하고 있다.

표준 웹스터 사전에는 “토요일은 주일 중 일곱째 날이다 (Saturday is the seventh day of the week), 일요일은 주일중 첫째 날 이다(Su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라고 기록되었고, 전 세계의 108개 언어가 토요일을 “안식일(Sabbath).”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사전을 보면 토요일이 일곱째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희승 감수, 엡센스 국어사전(민중서림, 1999)2332.

5) 천문학이 증거하고 있다.

일 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바퀴 도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하루는 지구가 한바퀴 자전(自轉)하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면 주일 순환(weekly cycle)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천문학자들은 주일 순환이 고대(古代)로부터 한 번도 깨어지지 않고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일의 뿌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증거가 달력에 나타나 있다.



창조시에 제정된 일곱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임을 달력이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증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은 태고(太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천문학적으로나 일곱째 날로 토요일이 분명하다.

3. 휴식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세계를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쉴 수 있는 밤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옛새가 있고, 쉴 수 있는 제칠일이 있다. 그러므로 일과 휴식은 피차에 함수관계(函數關係)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 낮과 밤이 바뀌지고, 옛새간 일하고 제칠일에 쉬는 창조주의 법칙이 바뀌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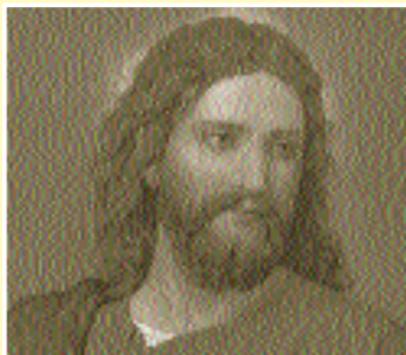
할 날”을 잊어버리고 “다른 날”을 지킬 것을 아시고, 힘써 일할 날들과 휴식의 날을 지정하여 주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 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 : 8~11).

그러므로 힘써 일할 날은 옛새 동안이다. 그리고 휴식의 날은 일곱째 날이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오늘 날 토요일이다. 그 날은 기억할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그 날은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로써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출 16 : 23)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도 쉬고, 자녀도 쉬고, 종도 쉬고, 문안의 객까지도 평안히 쉬는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 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고 그 날을 기뻐하셨으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인류의 휴식 리듬은 안식일이였다. 그러나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이다. 과연 예수께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예수님의 부활로 일요일로 옮겨졌는지, 영원 불변한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제 3 장

신약 시대와 휴식의 날을 찾아서

생 명체(生命體)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 식물이든 동물
0 이든 활동하는 때가 있으면 쉬는 때가 있다. 몸 속의 장
기(臟器)들도 모두 활동과 휴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한다. 위
장도 규칙적으로 쉬어야 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다. 위가 쉬는 다섯 시간 동안 간식을 하지 않으면 위염, 위
암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

1. 참 예배일(禮拜日)을 찾아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예배일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요,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보다 일요일을, 어떤 교회는
일요일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지킨다.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영원한 예배일로 세우셨는가? 아니면 안식일은 구

약 시대에만 지켜지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요일로 변경되었는가? 정확한 해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2. 영원 불변한 하늘의 표준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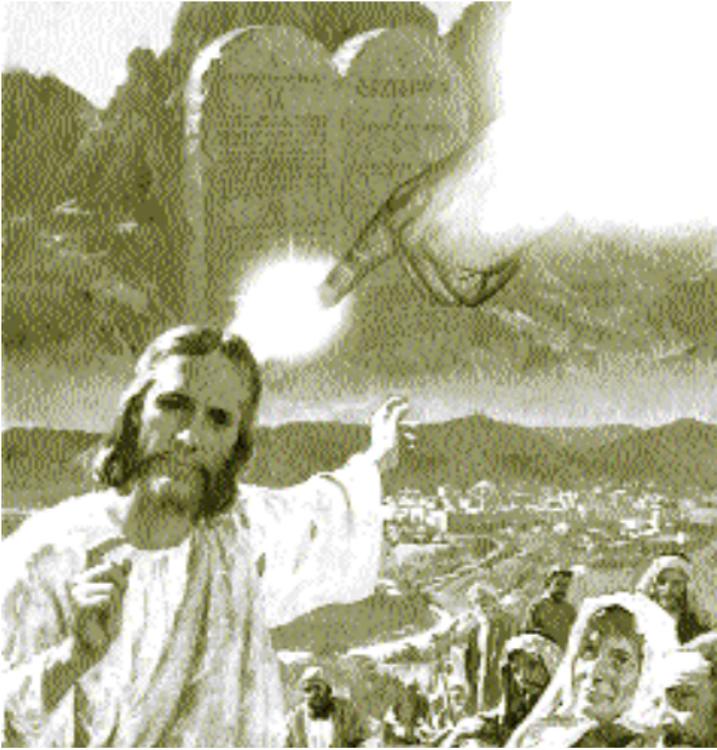
우리의 시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송국의 시보(時報)를 듣고 시간을 맞춘다. 그러면 방송국은 어디에 시간을 맞추는가? 방송국은 천문대에서 측정한 별들의 시간에 맞춘다. 별들이야말로 무구한 세월이 흘러도 1초의 어김없이 시간을 지키는 하늘의 표준 시계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예배일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사 8 : 20). 그 예배일의 초점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준 시계인 성경 말씀에 맞출 것이다.

3. 예수께서는 어느 날을 지키셨는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規例)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 : 16).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키셨다. 여기 규례(custom)란 헬라어로 “에이오쏘스”(εἰωσ)로서 “습관, 관습, 전례”의 뜻이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레 23:31, 32)로 지키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평생동안 자기의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키셨고,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으며, 자기의 습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는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습관대로 평생동안 지키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설교하신 말씀을 살펴보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 19).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주의 성령이 안식일에 함께 하셨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

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다.

4. 예수께서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규례대로 말씀할 전파하는 예배의 날로(눅 4 : 16),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막 2 : 27),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날로(막 3 : 4), 죄인을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 주는 날로(눅 13 : 16), 병자를 치료하는 날로(눅 14 : 3), 안식일의 주인으로(마 12 : 8) 그날을 지키셨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동안 안식일에 일곱번의 치료를 행하셨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다(요 5 : 1~18). 귀신들려 사단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막 1 : 21~28).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다(막 1 : 29~31). 한편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다(막 3 : 1~6).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다(요 9 : 1~41). 18년 동안 귀신들려 구부러진 여인을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눅 13 : 10~17). 고창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예배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날로 지키셨다.

병든 자를 고쳐 완전하게 하셨다(눅 14 : 1~4).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과 율법의 범법자라고 비난하였다.

5. 십자가로 계명과 안식일이 폐지되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안식일이 폐지되거나 다른 날로 바뀌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로 십계명도, 안식일도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장례에 사용할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후에 어느 날에 쉬었는가?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눅 23 : 54~56).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명도, 안식일도 폐지되지 않았음을 확신 할 수 있다.

디. 엘. 무디(D. L. Moody)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이 제 4계명이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정직하게 믿는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안식일은 폐지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지하였다는 것을 가리키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을 폐지한 일이 없다” (디·엘·무디, 무디의 십계명 해설, 권달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9), pp. 58, 59).

6. 날이 중요한가? 사건이 중요한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전후의 날과 사건들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무덤에 넣어 두니 이날은 예비일

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살아나셨느니라”(눅 23 : 52; 24 : 6).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 날이 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전후의 날들이 존재한다. 안식일은 성일(聖日) 중에 성일이요, 명절(名節) 중에 명절이다. 금요일은 성일을 예비하는 날이요, 토요일은 성일이고, 일요일은 성일 다음 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금요일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토요일은 명절이고, 일요일은 명절 다음날이다.

| 성일을 준비하는 날 | 성일(聖日) | 성일 다음날 |
|-------------|----------|----------|
| 예비일 | 안식일 | 안식 후 첫 날 |
|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 무덤에 쉬신 날 | 부활하신 날 |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그러므로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날인 안식일은 잊어버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일요일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제 4 장

사도들과 휴식의 날을 찾아서

O 주 만물에는 대 자연의 법칙이 있다. 지구의 자전(自傳)으로 낮과 밤이 계속되고, 지구의 공전(公轉)으로 계절의 변화가 생기며, 지구를 도는 달의 차고 이지러짐으로 절기(節氣)가 형성된다. 이러한 우주의 변화가 인간의 생체(生體) 리듬에도 영향을 준다.

정교한 인체는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연의 법칙은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다. 사람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면 건강해지고 어기면 질병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생명의 질서가 세대의 교체나, 세기의 변화로 바뀌질 수 있을까? 태초의 천연계의 법칙이나 생체 리듬이 세월의 흐름 따라 바뀌어질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세기가 변하여도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변할 수 없다.

1. 사도행전의 예배일을 찾아서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난 기원 후 61년경에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느 날을 지켰는가?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예배일의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바뀌어졌다면,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일요일 예배의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에 그 증거로 안식일 예배의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해답을 다음의 성경절들에서 찾아 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있다. 과연 부활 이후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을 지켰을까?

2. 승천 14년 후에는 어느 날을 지켰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14년(AD 45) 후에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을 지켰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행 13 : 14, 15).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믿었던 바울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4년 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행 13 : 42)고 요청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행 13 : 44) 모였다. 만일 이 때 안식일을 대체할만큼 부활일이 중요했더라면, 바울은 “이제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니, 주일을 지키시다!”라고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안식일 폐지나 주일 준수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

3. 승천 22년 후에 어느 날을 지켰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22년(AD 53)이 되는 해에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행 16 : 13) 예배를 드렸다.

혹자는 바울의 전도 대상이 유대인이었기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빌립보는 유대인이 없는 이방 도시이다. 그 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에 바울은 강가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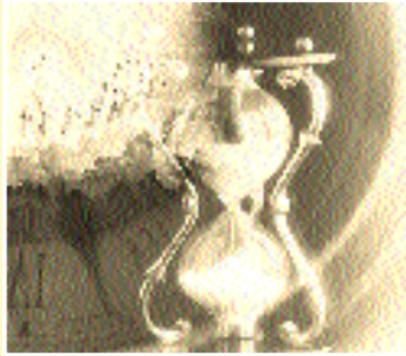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다

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규례대로…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행 17 : 2, 3)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자기의 규례대로(눅 4 : 16) 평생 동안 지키신 것처럼, 바울도 안식일을 자기의 규례대로 평생 동안 지켰던 것이다.

4. 승천 23년 후에 어느 날을 지켰는가?

혹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무덤속에 계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활을 굳게 믿었던(고전 15장)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는 죽은 예수만 믿었던 말인가?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고 무덤속에 쉬신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켰다. 바울은 부활 23년(AD 54년경) 후에도 “안식일마다…회당에서 강론하”(행 18 : 4)였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수(親手)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 기록하셨다. 또한 예수께서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키셨다. 십자가 후에도 제자들이 계명을 좇아 안식일을 지켰다. 승천 후에도 바울이 안식일을 계속 지켰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고, 예수께서 친히 지키셨고, 사도들도 지켰던 안식일을 우리도 계속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제 5 장

말세와 휴식의 날을 찾아서

오늘날 이 지구는 간경화를 앓고 있다. 문명의 이기(利己)로 자연계의 해독이 어려워지고 있다. 천지가 병들었고, 생명을 지켜주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홍수, 해일, 가뭄, 기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다. 현대 공업의 발달로 생태 환경이 오염되었고, 산성비로 광대한 삼림(森林)이 사라지며, 녹지(綠地)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구의 이상 기후와 환경 오염은 장차 지구에 찾아올 멸망의 전주곡(前奏曲)이다.

1. 말세의 징조들이 성경 어디에 예언되었는가?

예수께서 2천년 전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 : 3)라고 물어보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A.D. 70년)과 말세의 멸망의 징조들을 예언적 원근법(遠近法)으로 동시에 투시(透視)하셨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출현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민족들의 전쟁과 난리의 징조들, 처처(處處)에 있을 기근과 지진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징조들, 노아의 때와 같은 범죄들로 인한 지구의 멸망의 예언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저술가 엘렌 G. 화잇은 “마태복음 24장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중대한 성경 말씀임을 나에게 여러 번 계시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 곳에 기록된 예언들이 전부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복음 교역자, 149)고 말하였다.

2. 예배일에 나타난 말세의 참 교회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참 교회의 예배일이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마 24 : 3)에 있을 징조들을 “택하신 자들”(마 24 : 22, 24, 31)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마 24 : 20)고 부탁하셨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될 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말세의 참 교회는 재림을 사모하며 안식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서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다.

3. 임박한 구원과 안식일 준수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

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사 56 : 1~7)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다. 여기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롬 13 : 11)고 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을 밝히 보고 그 날을 지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겔 22 : 26). ♣

4.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경배하라고 했는가?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계 1 : 1)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온 땅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지는 마지막 기별이 기록되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 : 6, 7).

여기 요한이 증거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안식일 계명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출 20:11)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 | | | | | |
|--------------------|-----|-----------|----------------|-----------|---------------------------|
| 요한계시록 14 : 6, 7 | 하늘과 | 땅과 바다와 | 물들의 근원을 | 만드신 이를 | 경배하라 하더라 |
| 출애굽기 20 : 8~11 | 하늘과 | 땅과 바다와 | 그 가운데 모든 것을 | 만들고 |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
| | 옛새 | 동안은 힘써 | 네 모든 일을 | 행할 것이나 | 제칠일은 ...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

그러므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의 기별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자비의 기별이요, 공중에서 큰 음성으로 외쳐질 세계적인 기별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복음으로,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중대한 기별이다. 그러므로 이 기별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제 6 장

천국에서의 휴식의 날을 찾아서

벼원에 가면 의사는 제일 먼저 청진기를 대고 심장의 고
0동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불규칙하면 심장 질환으로
보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으로 본다.

심장(心臟)은 주먹만한 크기로 왼쪽 가슴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은 모체(母體)로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수
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뛰며, 전장 16만 km에 혈액을 순환
시켜 준다. 그리고 수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과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해
준다.

심장병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심부전증과 심장판막
증 등이 있다. 이러한 심장병에 걸리면 가슴이 빠근하고 운
동할 때 호흡이 곤란하며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콩닥, 코~
웅닥” 뛰며 무기력증까지 온다.

이러한 심장병을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육식과 버터, 치즈 등 기름기 음식, 흡연, 음주, 근심, 걱정, 과로, 긴장, 상심, 분노,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곧 걷기, 계단 오르기, 체조, 등산, 조깅 등을 주 3, 4회, 매 주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1. 심장같이 중요한 날

일곱 날 중에 심장과 같이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심장의 박동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도 멈출 수 없다.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면 심장병이 오듯이, 옛새 동안의 활동과 안식일 준수가 불규칙적이면 생명이 위험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쉬면 심장 기능이 활발하여 건강이 좋아지는 것처럼, 옛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진다. 심장이 모태로부터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하늘까지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날이다.

2.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경배의 날

하나님께서서는 헌옷같이 낡아버린 죄악의 지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계 21 : 1)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언제 경배할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月朔)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사 66 : 22, 23).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매 월삭”(매월 첫날)에 생명 과일(계 22 : 2)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며,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 안식일”은 “한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from one Sabbath to another)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다.

3. 영원한 날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

그렇다! 안식일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장처럼 살아 움직여 왔다. 천지 만물의 창조의 기념비적 초석이 된 안식일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지켜졌을 뿐 아니라, 세상 끝에와 도래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는 매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황금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을 영원한 휴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철일 안식일은 그 깊이에 있어서 창조의 뿌리까지 이르고, 그 길이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높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른다.



제철일 안식일은 이 땅에서 하늘 나라로 가는 생명의 황금 길이다.



제 7 장

휴식의 시간을 찾아서

이런 말이 있다. “만일 그대에게 썸이 있다면 닫아라. 썸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자명하다. 만물은 쉴 때 쉬지 않으면 안되게끔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땀흘린 뒤의 휴식은 달콤하다. 사람도, 가축도, 기계도, 농기구도, 풀벌레 같은 미물도, 땅도, 식물도 쉴 때 쉬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피곤한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쉬셨고,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배의 고물에서도 쉬셨고, 그리고 제칠일 안식일마다 율법의 규례대로 쉬셨다.

1. 안식일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서는 일곱째 날의 시간 속에 하나의 거대한 궁전을 세우셨다. 그 궁전 안에는 영적 보석들과 금광들이 가득 차 있다. 그 곳에는 장엄한 미(美)와 기쁨, 만족과 거룩, 사랑과 행복, 평화와 고요의 보화들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태초의 시간은 하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일곱 날로 분할하시고,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창 1 : 5). 성서적 하루의 시작은 자정부터도, 아침부터도 아니고, 저녁 곧 해 질 때부터이다.

| | |
|---|--|
|  | <p>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이다. 안식일은 휴식만이 아니고 성일로 지켰다(왕하 4 : 23).</p> |
|---|--|

엄도성 외 2인, 성경날말사전(서울: 평화사, 1982), 686

| 여섯째 날(금요일) | 일곱째 날(토요일) | 첫째 날(일요일) |
|------------------------------------|--|--------------------------|
| 해질 때 | 해질 때 | 새벽 |
| 예비일 | 안식일 | 일요일 |
|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므로”(막 15 : 42) |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 지니라”(막 15 : 42) | “안식 후 첫 날 새벽에”(눅 24 : 1) |

2. 안식일 시간을 어느 나라에 맞출 것인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면 안식일 시간을 어느 나라에 맞추어 지킬 것인가?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各處)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쉼 안식일이라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지니라” (레 23 : 31, 32).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각처에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규례대로 (눅 4 : 16) 영원히 지키신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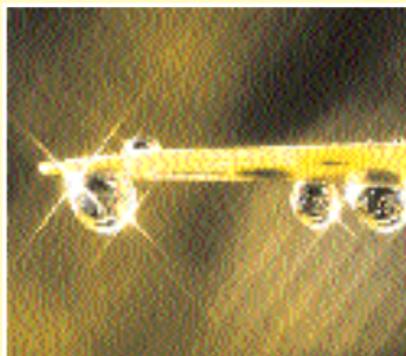
3.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이니라” (사 58 : 13, 14).

안식일은 밭을 금하는 날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날이다. 오락을 행치 않는 날이다. 쾌락을 도모하지 않는 날이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날이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찬송과 경배의 날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평화를 맛볼 것이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움을 받을 것이다.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듯 하늘나라를 주실 것이다.



제 8 장

참 주일을 찾아서

바의 고기라고 부르는 콩에는 피와 살을 만드는 단백질이 **탄**소고기의 배나 되고,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월등하며, 뇌신경, 세포막, 피부염,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는 지방과 칼슘이 많아 고영양, 고단백 식품으로 암과 각종 성인병의 치료제이다.

그러나 고기에는 생명도, 약성분도 없다. 불고기 1kg에서 나오는 “벤조피린”은 담배 600개피에서 나오는 독성 발암 물질의 양과 같다.

그리고 고기에는 비닐을 태울 때 생기는 “다이옥신”이 있고, 혈액에는 짐승의 오줌이 있어, 신장, 간, 암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 식품에도 이렇게 완전식품과 불완전 식품이 있는 것처럼 예배일에도 참 주일과 가짜 주일이 있다. 그러면 성서적 참 주일은 어느 날인가?

1.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 참 주일인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예수께서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셨는가?

“안식 후 첫 날 새벽에…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눅 24 : 1~6).

예수께서는 분명히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의미가 더욱 확실하다.

하나님께서서는 매주 안식일 외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나, 돌아가신 날이나, 부활하신 날이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2. 안식 후 첫 날이 일요일 밤인가?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

더니”(행 20 : 7)라는 말씀이 나온다. 혹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일요일 밤을 주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과연 ‘안식 후 첫 날’ 밤이 일요일 저녁인가? 영어 성경(Good News Bible)에는 ‘안식 후 첫 날’이 ‘토요일 저녁’(Saturday evening)으로 기록되었고, 새 번역 성경에는 ‘안식일 밤에’로 기록되었다.

바울이 안식일을 여전히 잘 지켰다는 사실이 “안식 후 첫 날에”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안식 후 첫 날, 곧 토요일 밤에 떡을 떼며 철야 송별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일요일 낮에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하루 종일 여행을 하였다. 바울은 철저한 안식일 준수자였다.

3. 매 주일 첫 날에 예배드리며 연보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매 주일 첫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利)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 : 2)고 당부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매주 일요일에 예배드리며 연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매주일 첫 날 곧 일요일에 일해서 얻은 소득을 “홀로 집에서”(루터역), “자신의 집에서”(프랑스역)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경유할 때, 예루살렘 기근 구제 연보를 드려 달라는 부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요일마다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매주 일요일에 일했으며 그 날에 얻은 수입을 구제 헌금으로 저축해 두었던 것이다.

4. 안식일을 폄론(貶論)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과 안식일이 폐지되었는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골 2:14~16).

여기 “의문”(儀文)은 다양한 법들을 언급한 것들로서 제사나 절기 등의 의식법(儀式法)들이며, “증서”(證書)는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œirografon)으로서 “손으로 쓴 문서”인데 일종의 빗문서이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고발하고 대적하는 죄의 빗 문서를 자신의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사도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다. 십계명에 기록된 제칠일 안식일(Sabbath=단수)과 1년에 일곱 번 돌아오는 절기에 연관된



예수께서는 자신을 예표하는 의문의 율법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안식일들(Sabbaths=복수)이다.

그 절기(節氣) 안식일들은 제칠일 안식일 외에 “기한에 미쳐”(레 23 : 4), “계절을 따라”(in their seasons-KJV), “정한 때에”(at the appointed times-TEV) 지킬 안식일들이다. 그러면 십자가로 폐지된 절기 안식일들을 살펴 보자.

(1) 무교절 “그 첫 날”(1월 15일)을 안식일로 삼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레 23:6, 7)말라고 했다.

(2) 무교절 끝 날인 “제칠일”(1월 21일)을 안식일로 삼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레 23:8)말라고 했다.

(3) 오순절인 “이 날”(3월 5일)을 안식일로 삼아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레 23:21)말라고 했다.

(4) 나팔절(7월 1일)인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레 23:24)라고 말씀하셨다.

(5) 대속죄일(7월 10일)을 “너희의 쉼 안식일”(레 23 : 32)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6) 초막절 “첫 날”(7월 15일)을 안식일로 삼아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레 23:35)말라고 하셨다.

(7) 초막절 끝날 “제팔일”(7월 22일)을 안식일로 삼아 “성회가”(레 23 : 36)되게 하라고 말씀 하셨다.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 볼 때 “제칠일 안식일” 외에 연중의 일곱 번의 명절 “안식일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 안식일들로 인하여 비판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제칠일 안식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

5. 십자가로 폐지되지 않은 율법과 안식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제자들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눅 23 : 56)였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계명도 안식일도 폐지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계명의 영속성(永續性)의 증거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 : 17)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 : 3)고 말했으며, 말세의 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계 14:12)들이다.

6. 성서적 참 주일(主日)은 어느 날인가?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이 없다. 오직 “주의 날”이 있을 뿐이다. “주의 날”을 요약하여 “주일”로 부른다.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계 1:10) 함을 받았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어느 날인가? “주의 날”은 헬라어로 “엔 테 퀴리아케 헤메라”(eu th̄ kuriach̄ h̄mera)로 영어로는 “주의 날”(Lord’s day)이다. 그 뜻은 “주께 속한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느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셨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主人)이니라”(마 12:8). 그러므로 요한이 계시를 본 날은 “주의 날”로 “안식일”이었다.



제 9 장

휴식의 날 변경을 찾아서

성인 한 사람의 세포 수는 약 1백 조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세포 하나 하나에는 세포막, 세포질,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등 각종 세포 소 기관들이 있어 율법의 궤도 안에서 생명이란 심포니를 연주해 내고 있다.

그런데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암 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암 세포는 왜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규율에서 빛나간 삶 때문이다. 주야(晝夜)가 바뀌는 생활, 쉼이 없는 생활, 스트레스와 분노, 천연 식품 대신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 등이다.

우주에도 율법이 있듯이 인체에도 생명의 법이 있다. 그런데 사람이 자연의 조화의 법칙을 변형시킴으로 체내에 암이 발생되어 죽음이 오게 되었다. 사단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 왔다.

1.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킨 사단의 암세포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 : 17)고 말씀하셨으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 4)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켰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사단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 91 : 11, 12)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인용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변경시켜 버릴 것이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되었다.



사단은 안식일을 변경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파괴하여 버렸다.

2. 십계명 변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단 7 : 25).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로마 천주교황은 자신을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교황 율리우스 2세)으로 말하여,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1천년이 넘는 중세 암흑시대 동안 6700만 명 이상의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을 학살하여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혔고, 안식일의 “때”(아람어-zimnin)를 제칠일에서 제일일로 옮겨 거룩한 율법을 변경시켜버렸다.

◆ 1977년도 판 가톨릭 교리문답집의 증거

질문 :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대답 :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질문 :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대답 :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Peter Geiermann, The Convert's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Rockford, IL: Tan Books, 1977), 50.

천주교회의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인 “법”(아람어-dath)을 삭제해 버렸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로 옮겼으며,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눔으로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되었다.

3.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 비교

| 하나님의 십계명 (출 20 : 3~17) | 천주교회의 십계명 (천주교 요리문답 1권 28절) |
|--|---------------------------------------|
|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1.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높이고 |
|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 |
| 3.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2.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발하지 말고 |
|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3. 주일을 지키고 |
|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 4. 부모를 효도 공경하고 |
| 6. 살인하지 말지니라 | 5. 사람을 죽이지 말고 |
| 7. 간음하지 말지니라 | 6. 사음을 행치 말고 |
|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7. 도적질을 말고 |
|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8. 망령된 증참을 말고 |
|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9.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

4. 각 교회의 저명 인사들의 증언들!

(1) 천주교 추기경 기본스의 증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읽어봐도 일요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성경

은 양심적으로 토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하고 있다”(*The Faith of Our Fathers*, 92nd edition, 89).

(2) 침례교 요람(*The Baptist Manual*)의 저자 에드워드 히스콕스 박사(E. T. Hiscox)의 증언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의 계명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다. 주일 변경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려 하나 안식일을 주일의 제칠일에서 첫 날로 옮겼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 변경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신약에는 없다. 절대로 없다!”(1893년 8월 20일에 열린 뉴욕 목회자 협의회에서 낭독).

(3) 그리스도의 제자교회 알렉산더 캠벨의 증언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것이 일곱째에서 첫째



예수께서 성서적인 안식일을 변경 하지 않으시고 그 영속성을 증거하셨다.

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같은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아니다. 그것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으며, 창조가 다시 있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그리스도교의 침례, 1824년 2월 2일 1권, 44).

(4) 감리교회 필립 캐론톤의 증언

“성경은 제칠일에 안식하라고 명한다. 그 날은 토요일이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곳은 없다”(감리교인 필립 캐론톤, 1949년 10월 26일).

(5) 장로교회 T. C. 블레이크(T. C. Blake)의 증언

“안식일은 십계명의 한 부분이다. 이 안식일 계명만이 그 제도(십계명)의 영속성에 관한 의문을 영원히 해결해 준다. 그러므로 도덕률(십계명) 전체가 폐지된 것이 입증될 수 있을 때까지 안식일은 유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안식일의 영속성을 확고하게 한다”(T. C. Blake, *Theology Condensed*, 압축된 신학, 474, 475).

이상의 증거들을 살펴 볼 때 사단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교란시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 버렸다. 십계명을 변경 시켰다. 안식일을 첫째 날로 옮겼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넷째 계명에만 기억할 날을 지정해 주셨다. 그 날은 아무 날이나 될 수 없다. 그 날은 제칠일 안식일이다. 그 날은 토요일이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저명인사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10 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찾아서

광우병의 회오리가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과 전 세계, 급기야는 한국까지 육식가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광우병의 원인은 채식 동물인 소에게 썩은 육식 사료를 줌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광우병이 소뿐 아니라 양, 닭, 사슴,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 전염된다는 것이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녹아 미치광이가 되어 죽는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고기나 우유, 마가린 등 식품들을 먹으면 광우병이 재발하여 소처럼 미쳐 죽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천연식품에는 건강에 유익한 생명의 인(印)이 찍혀 있으나, 고기에는 건강에 유해(有害)한 사망의 표(標)가 찍혀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예배일에 도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들어 있다.

1. 하나님의 표징과 인(印)은 무엇인가?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시상(詩想)을 적어 놓은 휴지조각이 자그마치 6,000 달러에 팔렸다. 그것은 휴지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피카소가 데생을 해놓은 종이조각이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 종이에 작가의 예술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 크기의 종이조각에 미국 정부가 독수리 그림의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00달러 짜리 지폐로 변한다. 그것은 종이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기 때문이다.

제칠일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대 왕들의 도장에는 이름, 통치 영역, 직위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십계명 중 안식일에만 하나님의 인의 3대 요소(출 20 : 11)가 들어 있다. 이름(나 여호와), 통치 영역(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직위(만들고[창조주])가 명백히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표징과 인은 안식일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출 31 : 13).

여기서 “표징”이란 히브리어로 “오트”(tw: 기념비, 표시, 신호, 징조, 표)로서 영어로는 사인(sign)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념비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선민을 구별짓는 특별한 사인으로 주셨다.

2.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보았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면 짐승의 표는 일요일로 드러날 것이다.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계 14 : 9~11).

그러면 표를 소유한 짐승은 무엇인가? 그 짐승은 동물로 표상된 사람(계 13 : 18)으로, “큰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 (계 13 : 5)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 (계 13 : 6)였으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계 13 : 7) 받았다. 그리고 그가 장차 모든 자로 하여금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계 13 : 16) 할 것이다. 그러면 참람된 입으로 하나님을 훼방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자로 표를 받게 할 짐승은 누구인가?

로마 교황권은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Article on the Pope, Feraia

Ecclesiastical Dictionary)로 말하여 하나님을 참람되게 훼방하였으며, 1천년이 넘는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콜로세움, 원형극장, 종교재판소, 그리고 예수회를 통하여 6천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하여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변경한 그가 장차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3. 짐승의 표(標)란 무엇인가?

오늘날 고기 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발암 물질과 광우병의 표가 들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짐승의 표”가 들어 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印)인 “안식일”(겔 20 : 20)과 대조되는 것으로 일요일이다.

로마 천주교회는 스스로 일요일을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은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스(Gibbons) 추기경은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H. F. 토마스 추기경의 서기, 가정을 위한 성경통독, 1942년판, p. 449)라고 말했다.

미국의 종교 저술가 엘렌 G. 화잇은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와 창조주 기쁨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교회증언 8권, 117)라고 말하였다.

| 표의 종류 | 경배의 분류 | 경배의 대상 | 두 가지 표 | 두 경배일 |
|--------|-----------|--------|---------|--------|
| 두 가지 표 | 창조주 경배 | 하나님 | 하나님의 표징 | 제칠일안식일 |
| | 짐승의 우상 경배 | 천주교황 | 짐승의 표 | 일요일 |

4. 일요일이 언제 짐승의 표가 될 것인가?

사람들이 고기를 섭취한다고 당장 성인병에 걸리지 않지만, 고기의 독성분이 오랜 세월동안 체내에 축적되면 각종 성인병이 되는 것처럼, 현재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자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일요일 법령이 법왕권에 의해 세계적으로 반포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참 안식일을 버리고 교황권의 거짓 안식일 법령을 따름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교황권은 장차 모든 자로 하여금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계 13 : 16, 17) 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순응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

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605).

안식일의 제정자가 하나님이라면, 일요일의 제정자는 교황권이다. 안식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라면, 일요일은 짐승을 경배하는 날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表徵)이라면, 일요일은 짐승의 표(標)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선포될 마지막 기별은 짐승을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계 14 : 7)하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십계명중 넷째 계명에만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 명시되어 있다.



제 11 장

휴식의 날을 제정하신 이유를 찾아서

현미(玄米), 통밀, 잡곡 한 알 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완전한 영양소와 약성분(藥性分)까지 들어 있다. 이러한 곡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껍질층(겨층)이다. 껍질의 섬유질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흡수하게 해주고, 장을 청소해 준다. 그리고 담석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 치료해 준다.

둘째로, 배유(胚乳)층이다. 배유에는 흰쌀, 흰밀가루 층으로 힘과 열을 내는 당질과, 피, 살, 호르몬, 손톱, 발톱, 머리카락까지 만드는 단백질 성분이 있다.

셋째로, 배아(胚芽)층이다. 배아(눈)에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 에너지를 발생하는 작용을 한다. 배아에는 칼슘, 철분이 있어 뼈와 피를 만들어 주고, 마그네슘, 인, 아연 등이 있고 당뇨를 조절해주는 크롬까지 들어 있다.

1.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식품을 사람이 섭취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 : 27, 28)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거룩한 날로, 기쁨의 날로, 예배의 날로, 선을 행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다.

2.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웅장한 건물을 바라볼 때 건축가를, 섬세한 조형물을 바라볼 때 조각가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바라볼 때 화가를, 신비로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의 숨씨를 우리는 상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피력하셨다. 그러나 창조를 완성하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기념탑을 일곱째 날에 세우셨다.

사람마다 생일이, 건물마다 준공일이, 학교마다 개교 기념일이, 국가마다 건국일이 있는 것처럼, 천지만물의 기념일은 안식일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데 어떻게 생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건국일이 폐지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제칠일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옮겨질 수 있단 말인가!

3. 구원(救援)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때 목사님은 “8월 15일을 지켜야 해방됩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은 “광복절을 지켜야 해방이 됩니까?”라고 묻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셨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

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 : 15).

우리 나라가 1945년에 독립되었으니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엡 2 : 8)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히 4 :4),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히 4 : 10)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 휴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히 4 : 12)한다고 했다.

그렇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하면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제 12 장

휴식의 날을 위한 나의 결심

옛 말에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즉 의약과 음식의 근원은 같다는 말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산과 들에 널려 있는 곡물들, 나무열매, 풀뿌리, 야채류와 해초류 등에는 현대의학을 근거로 합성된 알약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약성(藥性)이 들어 있다.

피를 맑게 하는 대추, 눈을 맑게 하는 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굴, 이뇨제가 되는 배, 통변을 좋게 하는 사과,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없애 주는 도토리과 콩, 고온 피부색을 만들어 주는 울무, 관절염을 다스리는 현미, 간을 보호하는 녹두, 고혈압을 예방하는 팥, 혈관 벽을 강화시켜 주는 메밀, 비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기장, 신경을 진정시키는 조 등 수 천만가지의 의약품들이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식물들에 있다. 이러한 천연식품들은 우리 체내에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질병의 치료제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에덴동산에서 완전식품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 1 : 29). 그러나 현대 문명의 발달로 가공식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철일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사단이 십계명을 변경시켜 거짓 주일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다.

1. 옛적 길을 찾아서

일찍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렘 6 : 16)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어떤 길이 옛적 길인가? 그 길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길이다.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길이다. 고대(古代)로부터 시작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건강과 행복의 길을 동시에 주셨다. 건강의 길은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요, 행복의 길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철일 안식일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에서 주신 자연식품을 섭취하고, 옛새동안 힘써 일하고 제철일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지키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이요, 심령에 평강을 주는 축복의 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길이다. 그 길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길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사도시



제철일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옛적 길이다.

대와 재림 때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하늘 나라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하이웨이이다.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 : 13, 14)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길이 옛적 길이요, 좁은 길이요, 험착한 길로서 들어가는 자가 적은 길이라면, 일요일을 지키는 길은 중간에 출현한 길로서 그 길은 넓은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이다.

우리는 이제 참 예배일의 뿌리를 찾았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일요일은 그 예배의 근원이 다르며 족보가 다

르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늘 나라까지 이르는 영원한 예배일이다.

2.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당신은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천주교황을 따를 것인가? 성경을 따를 것인가? 전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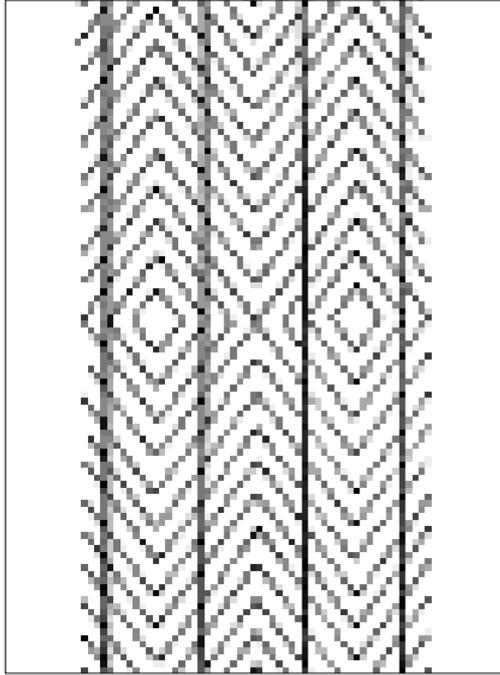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 : 3, 8, 9)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황권으로부터 시작된 일요일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없고,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잠 14 : 12)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길, 성경에 비취볼 때 바른길, 십계명에 비취볼 때 바른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यो 진리요 생명”(요 14 : 6)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제칠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길이다. 십계명에 기록된 길이다. 예수께서 지키신 길

♣ 우측 그림이 휘어진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세워서 보면 선이 반듯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서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휘어진 교회로, 잘못된 교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안식일이 성서적으로 바른 것임을 알게 되었다. ♣



이다. 참 교회에 소속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남은 자손을 두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계 14 : 12)들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오늘날 어느 교회인가? 그들이 바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도…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벧전 2 : 12)하셨다고 말씀했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야 한다. 그분께서 규례대로 지키신 안식일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3.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 소책자를 여기까지 읽으신 귀하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성서적 안식일을 확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鼓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사 56:4, 5).

이제 귀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인 토요일로 기억하여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비록 생식 기능이 마비된 고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신 분들을 돕기 위하여 가까운 교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깊은 성경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도 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드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의 빛줄을 굳게 잡으시고 선한 목자장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축복의 영이 귀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p style="text-align: center;">더 깊은 성경 연구를 위한 무료 통신 과목</p> | <p style="text-align: center;">더 깊은 예언 연구를 위한 유료 통신 과목</p> |
|---|---|
| <p><input type="checkbox"/> 예수와 함께(어린이용) <input type="checkbox"/> 오늘의 신앙(일반용) <input type="checkbox"/> 건강을 향한 새출발(일반용)</p> <p>원하는 과목에 V표를 하시어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p> | <p><input type="checkbox"/> 다니엘서 (1,500원) <input type="checkbox"/> 요한계시록 1권(2,000원) <input type="checkbox"/> 요한계시록 2권(2,000원)</p> <p>권당 대금에 상당하는 우표를 동 봉해 보내시면 됩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 보내실 곳 : 130-650 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110호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02) 3299-5234~5</p> | |
| <p style="text-align: center;">“휴식의 날을 찾아서” 서적 문의</p> | |
| <p>“휴식의 날”을 모르는 수많은 분들에게 본 소책자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값 : 500원 (♣ 100권 : 5만원, ♠ 1000권 : 50만원) ▶ 연락처 : (0502) 770-3004, HP : 011-9015-0771 ▶ E-mail : wckc077@kuc.or.kr ▶ 본 출판물은 무단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p> | |
|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신 앙 건 강 상 담</p> | |